



개검의 데자뷔

서울시 출입 기자의 일과는 단신 기사 쓰기로 시작해 단신 기사 쓰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일의 시작과 끝이 보도자료의 살바를 잡는 일이다. 보도자료와 매일 씨름한다. 시쳇말로 자잘한 기사가 많다. 서울시와 시의회, 여기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까지 가세해 보도자료를 매일 쏟아내기 때문이다. 각 구청이 매일 1개씩만 자료를 낸다고 해도 하루에 25개씩 보도자료가 나오는 셈인데, 보통 서울시내 구청의 절반 정도는 매일 1개 이상씩 보도자료를 쏟아낸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시는 보통 하루에 예닐곱 개의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합치면 일주 스무 개 남짓한 보도자료가 서

울시 출입 기자들의 손에 매일 쥐어지는 셈이다.

일단, 서울시청에 막내 기자로 배치되면 처음엔 잘 모르고 주어진 보도자료를 일단 찬찬히 읽어보게 된다. 그리고, 허덕인다. 양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도자료를 무작정 받아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바쁘게 여기저기 전화도 돌려보고, 아무리 자잘한 자료라도 쓸만한 기사는 단신 기사 처리를 해서 송고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보도자료, 그 다음엔 또 다른 자료. 이렇게 하나 하나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다. 지나고 보면 결국 받아쓴 경

우가 더 많았던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오전 시간이 말 그대로 ‘순삭’ 된다.

방송기자라서 더 허무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서울시 기사는 아무래도 지역 이슈가 많다 보니 전국에 송출되는 메인 뉴스 블록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더라도 끄트머리 지역 기사 블록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나는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히, 방송사의 지자체 출입 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전 내내 발장구를 치고 있는 백조 같은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바닥에 땀 난 백조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다 보면, 어느 정도 보도자료의 계절적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하는 물청소를 시작하고, 여름에는 한강 수영장을 개장하고, 가을에는 축제를 개최하고, 겨울엔 시청 앞 스케이트장 개장하고. 이런 식이다. 물론, 이 얘기는 수년 전 코로나19 이전에 출입했던 시절의 얘기다.

그런데, 서울시의 보도자료 패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내 눈에 들어왔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3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아니 보도자료가 무슨 사골국물도 아니고, 이게 뭐지? 예를 들면 이렇다.

1. 다음 달 한강 수영장 개장
2. 내일 한강 수영장 개장
3. 한강 수영장 개장 첫날 몇 명 방문
4. 개장 1주일 만에 수영장 방문객 몇 명
5. 개장 한 달 만에 몇 명 방문
6. 다음 주에 한강 수영장 폐장
7. 한강 수영장 폐장...올여름 몇 명 방문

물론, 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가 많은 지자체 보도자료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처럼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7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 일단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었다. 한강 수영장 개장 소식이야 개장 전에 한 번, 개장할 때 한번, 폐장할 때 한 번이면 족한 게 아닐까? 말 그



대로 서울시 보도자료의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며 기사를 송고하면서 혼자 이런 푸념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이걸 따져 물을 기회가 왔다.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와 저녁 약속이 잡혀 조용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연스럽게 맥주도 한 잔 하면서 편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배도 부르겠다. 약간 취기도 들었겠다. 불현듯 용기가 생겼다. 나는 가슴에 품고 다녔던 푸념을 입으로 털어냈다.

“근데요. 보도자료 너무 많이 내시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골처럼 우려먹는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개로 압축해도 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대화 끝에 슬쩍 운을 띄워 본 것이다. 내 판에는 농반진반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가히 명언이었다.

“개는 개뼉을 줘야 소파를 물어뜯지 않는 법이죠. 하하...”

그는 약간 술에 취해 웃으면서 ‘뼈 없는 진담’을 건넸다. 그것은 은연중에 튀어나온 ‘프로이트의 말실수’ 같은

것도 아니었다. 또렷한 인지 상태로 내 질문에 정확히 답한 것이었다.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지만 그는 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일단 맥주 잔을 부딪히며 맥주와 함께 그 말도 함께 꿀떡 삼켜 내고,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혼자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내가 오전마다 붙잡고 씨름했던 그 수북이 쌓인 보도자료가 실상은 나한테 던져준 개껌이었다는 얘기였다. 공교롭게도 나는 개띠였고, 실제로 그걸 열심히 물어뜯다 보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밥 먹으면 2시. 잠깐 뒤 알아보면 3시. 어찌다 보니 5시. 그렇게 나는 소파를 물어뜯을 새 없이 살았던 것이다.

그의 말대로 나는 개처럼 살았다.

그날 그 술자리는 조용히 마무리됐지만 그 뒤로, 나는 유독 개껌이 많은 날에는 소파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또 뭘 감추려고 스케이트장, 빙판길, 고드름 조식 3중 세트 보도자료가 나왔을까. 그런 날에는 개껌 중 몇 개는 추려서 보지도 않고 이면지 함에 넣

고, 소파와 관련된 타사의 단독보도는 없는지 살펴보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열에 일곱은 꼭 뭔가 짚이는 게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게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간에, 사실 기자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자들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정권 교체, 한미 정상회담, 지방 선거. 정치, 경제, 통일외교, 사회 섹션의 상단에 스트레이트가 차고 넘치는 계절이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굵직한 발표가 우수수 쏟아지는 날엔 그 날의 기억이 난다. 맥줏집에서 서둘러 화장실로 도망쳤던 그 날이 또렷하게 생각난다.

바로 그 맥줏집의 어느 지자체 공무원처럼, 보도자료 작성자가 혹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취중 진담을 터놓지 않는 한 위 기사들이 급조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요즘처럼 스트레이트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날. 어떤 기사는 반드시 어떤 기사를 밀어내고, 어떤 기사 때문에 어떤 기사는 반드시 쪼그라든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한 번쯤은 발표의 진의를 들춰볼 필요가 있다.’

‘발표 뒤에 가려질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소파이고 무엇이 개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그 장면도 함께 다시 떠오른 것이다.

시청 기자실 구석에 앉아 보도자료를 세면서 오늘은 무슨 개껌을 버려야 하나 만지작 거렸던 그 순간이. 🍷